

#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

김 승 곤<sup>1)</sup> · 정 찬 식<sup>2)</sup>

- 목 차 -	
ABSTRACT	III. 결과 및 자료고찰
I. 서 론	1.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 및 사회관계 미친 영향
1. 연구의 필요성	2.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연구의 목적	3. 엘리트 스포츠의 행정 조직
3. 연구의 문제	4. 학생 선수의 관리
4. 연구의 제한점	5. 대표 선수 및 팀 관리
II. 연구방법	6. 각종 경기대회
1. 연구대상	7.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2. 연구기간	IV. 결론 및 제언
3. 측정도구	1. 결론
4. 조사절차	2. 제언
5. 자료처리 및 통계 방법	참고문헌

## A Research on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about elite Sport

Kim, Seong-Gon · Jeong, Chan-Si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sirable ways of elite sport through the research of the consciousness of elite sport in Cheju-do To achieve the above,539 Cheju people were asked 56 questions about elite sport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 this paper, T-test, ANOVA and  $\chi^2$ (chi-squares) test methods through the use SAS were used t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concrete problems drawn from such a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t is certain that most of the Cheju people trend to have a negative reply in the role of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2) 제주도 체육회

elite sport about promotions of sports itself or social relation. Most Cheju islanders think that elite sports seldom influence the social union, and the sound atmosphere of our nation.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elite sport must be connected with the School sports and sport for all.

2.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about influence of sports activity is changing toward affirmative attitude after eighty-decade years. This result seems to be desirable to develop elite sport.

3. In a question of a spor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athletes, most of cheju islanders trend to have a negative attitude about the chief of government or businessmen centered sports administrative activities. only physical directors sympathize with the leading role of an athletic organization. And both of them have no interest in relation to between the system of an local sport council and financial support from an local self-governing.

4. From the viewpoint of caring for student athletes, they dont think about many schools make an effort to cut down on a loss of student athletes schoolwork, and they also take preferential treatments and a scholarship for entering upon schooling as a matter of course. Especially they have a high opinion of school costs and offering lodging and boarding in the benefits of student athletes schoolwork.

5. Cheju islanders have not answer affirmative answer toward the local representative athletes or teams, but they agree to the necessity of the exchange between the elites from the different area and camp training. And they also know that the system of prize for elite athletes should be improved.

6. It is shown that an event or all-round games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local athletics, and rearing for elite athletes, either. In relation to the managing a tournament, they note that the point to be considered are general indifference, an excessive competition, government-centered management, an excessive expenses in finance, the time fixed for an athletic meeting, managing an event, manpower mobilization, and a very extensive scale.

7. As regards the influence of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inducing or joining a nation athletic meet, they emphasize the progress of the athletes ability.

After all, our cheju islanders think that the cooperation of mass communication must be needed to develop elite sports. And they question the problem of connection between the scientific program for elite sport and sports for all. Lastly they call for the conversion of understanding elite sport, the local dispersion of central sports event,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port government setups for elite.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생활체육에 비하여 엘리트 스포츠의 발달이 빨랐던 것은 과거에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민관식,1993). 일제하에서는 민족적 저항으로, 해방 후에는 북한과의 외교 전쟁으로, 경제 발전의 시대에는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을 따라 잡는 민족의 기상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유로 해서 급진적인 발전을 하여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급진적인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은 지역 스포츠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프로 스포츠의 예를 보더라도 스포츠 활동을 생계로 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구단이라는 하나의 기업체 라기 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팀으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도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스포츠의 승리에 의해서 획득되는 위광의 가치가 사회에 확대되어 권위의 가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회적 제력의 작용 요인으로 엘리트 스포츠가 촉진된다는 엘리트 스포츠 촉진의 외부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김성룡·장세창·송승건,1993). 「권위의 가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다분히 중앙 통제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원적 기능에 반하여 촉진되는 속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트 스포츠 촉진의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는 중앙 집중적 논리가 우선 되고 그 하위 요인으로서 지역 스포츠 활동을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엘리트 스포츠의 영역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저변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엘리트 스포츠는 국가 대표 선수와 같이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체육, 군사체육, 직장체육 중의 일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한다면 학교 체육입과 동시에 엘리트 체육이고, 군이나 직장에서 운동부를 운영하여 실업단 대회 등에 출전한다면 그 것도 엘리트 체육이다(진성태, 1998).

엘리트 스포츠를 촉진하는 내부적 요인, 즉 신체적 체 능력의 발전을 곤란성의 도전으로 전개하는 스포츠의 성격과 이것을 강조하는 스포츠계의 체계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엘리트 스포츠 영역의 다양성과 이를 촉진하는 내부적 요인 등을 고려 할 때 일정 지역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활동의 양상과 이에 대한 주민 의식의 고찰은 엘리트 스포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86 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 이후 외면적으로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수준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일 예로 하키, 핸드볼 등의 종목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할 만큼 세계 정상 수준의에 올라서 있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든 전국규모대회 든 텅 빈 관중석에 참가팀만의 경기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있다. 정상적 시각으로 본다면 폭 넓은 경기인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배출이 되어 경쟁력을 확보하여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이의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경쟁에서의 승리가 최고, 최선의 가치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정상적 성장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급진적 성장의 결과 경쟁에서의 승리는 금전적 보상 또는 개인적 위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운동 선수는 자유 및 자발성으로의 모든 접근로를 봉쇄 당한 사회적 힘의 수인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정적 현상들과 제반 엘리트 스포츠 역기능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의 의의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그 초보적 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에서의 활동 내용에 대한 고찰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체육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의식을 참고로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 스포츠 활동 전반이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 같이 제주도 지역

의 스포츠 활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를 추종 형태로 전개되어온 만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한국 개최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시각이 지금까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에 대한 고찰과 지역 스포츠 활동이 체육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 선수 및 팀의 관리, 각종 경기대회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하여 지역엘리트 스포츠의 바람직한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 3. 연구 문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 1)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지역주민의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 3) 엘리트 스포츠 행정 체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4) 학교 엘리트 스포츠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5) 각종 대회 운영에 대한 도민 의식과 개선 방향에 대한 사항은 무엇인가?
- 6)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 방향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4. 연구의 제한점

- 1) 제주도내 대학 재학생 및 이 이상에 해당하는 연령의 체육인 및 일반인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 2) 전화, 면접 등에 의한 현상 파악 및 사실 발견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설문지 조사로 한정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체육 전문인 및 일반인 상대로 1,000매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621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82부를 제외한 539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1〉 연구대상

구분 내용	성 별		지 역 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총계
	남	여	시 지역	군 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인원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2. 연구 기간

- 1) 연구 계획 및 문제 설정 : 1997. 11.1 ~ 11.30
- 2)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 1997. 12. 1 ~ 12. 31
- 3) 질문지 작성 : 1998. 1.1 ~ 1.31
- 4) 질문지 배부 및 수집 : 1998. 2. 1 ~ 2. 28
- 5) 자료 처리 및 결과 분석 : 1998. 3.1 ~ 3.31
- 6) 논문 작성 : 1998. 4.1 ~ 6. 5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김동규(1997)와 오상남(1993)의 설문 문항을 기초로 발췌하고 종합 수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에 대한 검증 후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이 총 56문항으로 하여 5점 등간 척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표 2〉 설문 구성 내용

구성지표	문항내용	문항수
배경질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신분별(경기인, 비경기인, 일반인)	5
체육관계 및 사회관계	학교체육 및 생활 체육활성화, 전문체육인 양성, 사회적 유대강화,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 건전사회분위기조성,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및 지역 홍보	11
인식변화	체육일반 및 사회발전에 대한 연내 구분별 기여도에 인식 변화	3
행정조직	행정조직 책임자, 스포츠 단체의 기능과 역할, 육성체계 인식, 행정적 재정적 지원	4
학생선수 관리	학업손실, 대회 참가 횟수, 특기생 진학제도, 장학혜택	4
대표선수 및 팀관리	관심과 기대감, 선수 스카우트, 합숙훈련, 포상제도	4
각종경기대회	도내 경기대회, 전국대회	15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인식전환,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 엘리트 선수의 인적 자질 향상, 생활체육과 효율적 연계, 스포츠 과학화, 금정보상 및 장학제도, 대회의 지방 분산, 행정 책임자, 매스컴의 협조	10
문항총수		56

#### 4. 조사절차

연구자와 질문 내용에 대하여 사전 이해가 이루어진 전문인의 협조에 의하여 응답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 5. 자료처리 및 통계 방법

설문지의 자료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한 응답 부수를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신분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동간척도법에 있어 평점은 1~5점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 평점기준

평 점	평 가
4.51 이상	강한 긍정(매우 필요함)
3.51 ~ 4.50	긍정(필요함)
3.01 ~ 3.50	보통
2.01 ~ 3.00	부정(필요 없음)
2.00 이하	강한 부정(전혀 필요 없음)

유의차 검증에서는 t검증, 변량분석(ANOVA),  $\chi^2$ (Chi-squares)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변량 분석 후 유의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Scheffè-test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고찰

#### 1.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친 영향

##### 1) 체육관계

##### (1) 학교체육의 활성화

〈표 3-1〉은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에 있어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2.73으로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 유의차 검증에서는 성별,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 보다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에서는 30대에서 3.02로 보통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40대에서 부정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Scheffè의 사후 검증에서 "10대와 30대"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3-1> 학교체육활성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82	2.61	2.75	2.65	2.44	2.74	3.02	2.66	2.99	2.64	2.70	2.73
SD	1.10	1.06	1.10	1.05	1.01	1.02	1.31	1.05	1.03	1.06	1.11	1.08
t or F	4.63		0.86		4.54				2.63			
P	0.031		0.353		0.003				0.072			

(2) 생활체육 활성화

<표 3-2>는 엘리트 스포츠가 생활 체육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에서 2.74점으로 "부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성별, 지역별, 신분별에서는 유의차 ( $P > .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별의 경우 30대의 경우 어느 정도 긍정에 가까운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Scheffe의 사후 검증에서도 "30대와 20대, 30대와 10대, 30대와 40대 이상"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도민의 경우 엘리트 스포츠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이다.

<표 3-2> 생활 체육 활성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73	2.76	2.76	2.70	2.58	2.74	3.15	2.45	2.99	2.76	2.68	2.74
SD	1.04	1.00	1.01	1.05	1.13	0.89	1.14	1.05	0.89	1.06	1.03	1.03
t or F	0.09		0.36		4.54				2.83			
P	0.759		0.547		0.003				0.060			

(3) 전문체육인 양상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

<표 3-3>은 엘리트 스포츠가 전문체육인 양상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에 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전체 평균이 3.03으로 "보통"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유의차 검증 결과 지역별,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에서 있어 시 지역의 경우 3.11점으로 "보통"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군 지역에서는 2.72점으로 "부정"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에 있어서는 20, 30대에서 각 3.14점과 3.19점으로 "보통"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20, 30대에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에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전문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01	3.06	3.11	2.79	2.67	3.14	3.19	2.87	3.19	2.86	3.07	3.03
SD	1.22	1.19	1.20	1.21	1.18	1.12	1.25	1.39	1.11	1.11	1.26	1.20
t or F	0.03		7.13		4.39				2.15			
P	0.585		0.007		0.004				0.117			

2) 사회관계

(1) 사회적 유대강화

<표 3-4>는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적 유대강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내용이다. 평점 범위 1~5점에서 2.81로 "부정적 평가"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에서는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나타나고 있는데 30대에서 3.13점의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하고 있다.

품동평점에 있어서는 "성별, 지역별, 신분별"에 있어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 도민들이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적 유대 강화면에서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사회적 유대강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83	2.78	2.82	2.76	2.62	2.81	3.13	2.64	2.93	2.75	2.80	2.81
SD	1.11	1.01	1.04	1.15	1.07	1.03	1.15	1.00	1.00	1.09	1.07	1.07
t or F	0.21		0.42		4.50				0.70			
P	0.645		0.517		0.003				0.497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2) 애국심 및 애항심 고양

〈표 3-5〉는 엘리트 스포츠가 제주도민의 애국심 및 애항심 고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12로 "보통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 남자가, 연령별에 있어 30대 이상에서, 신분에 있어 체육인중의 경기인과 일반인이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에서는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나타나고 있다.

Scheffé 검정에서도 애국심 및 애항심 고양의 평균치 차이는 "30대와 20대"사이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은 엘리트 스포츠가 애국심 및 애항심 고양에 다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에서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상현(1993)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체육교사의 의식 및 태도 조사에서 애국심 고양에 있어 제주 지역의 경우 4.11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3.96점에는 다소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5〉 애국심 및 애항심 고양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20	3.02	3.13	3.08	3.07	3.02	3.40	3.19	3.23	2.96	3.16	3.12
SD	1.10	1.10	1.11	1.09	1.08	1.08	1.19	1.06	1.13	0.98	1.14	1.10
t or F	3.56		0.21		2.93				2.08			
P	0.059		0.650		0.033				0.126			

(3)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표 3-6〉은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관계에 있어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조사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 점에서 2.92로 "적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에서는 "연령별,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30대에서 3.22점으로 "다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10대와 20대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Scheffé의 검정에 의하면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한 평균치 차이는 경기인 중 "경기인과 비경기인" 간에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관계에 있어 건전 사회 분위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제주도민은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체육인중의 경기인의 경우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비경기인 경우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3-6〉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93	2.86	2.91	2.87	2.67	2.85	3.22	2.94	3.16	2.69	2.92	2.90
SD	1.04	1.02	1.02	1.06	0.94	1.02	1.12	0.99	0.84	1.10	1.03	1.02
t or F	0.58		0.10		4.63				5.21			
P	0.447		0.756		0.003				0.005			

(4)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고양

〈표 3-7〉은 엘리트 스포츠가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고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내용이다. 평점 범위 1~5점에서 3.04로 "보통"의 평가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에서 "보통"의 평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 결과 지역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 보다는 다소 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고양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10	2.97	3.10	2.87	2.90	3.05	3.24	2.94	3.09	3.01	3.04	3.04
SD	1.12	1.10	1.10	1.12	1.02	1.08	1.25	1.14	1.07	1.14	1.11	1.11
t or F	1.57		4.17		1.70				0.12			
P	0.210		0.041		0.166				0.887			

(5) 국가 및 지역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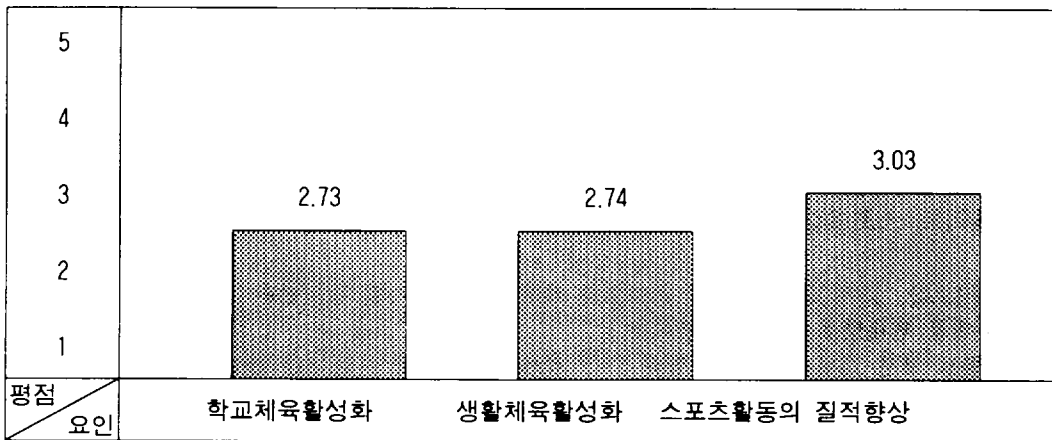
〈표 3-8〉은 엘리트 스포츠가 국가 및 지역 홍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내용이다. 평점 범위 1~5점에서 3.22점으로 "보통"의 경향을 나타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에서 "보통"의 평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 결과 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3-8〉 국가 및 지역 홍보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25	3.17	3.25	3.11	3.06	3.23	3.27	3.29	3.35	3.12	3.22	3.22
SD	1.25	1.25	1.27	1.19	1.37	1.23	1.22	1.24	1.12	1.30	1.26	1.25
t or F	0.54		1.24		0.62				0.81			
P	0.464		0.265		0.599				0.444			



〈그림 1〉 엘리트 스포츠육성이 체육관계에 미친 영향의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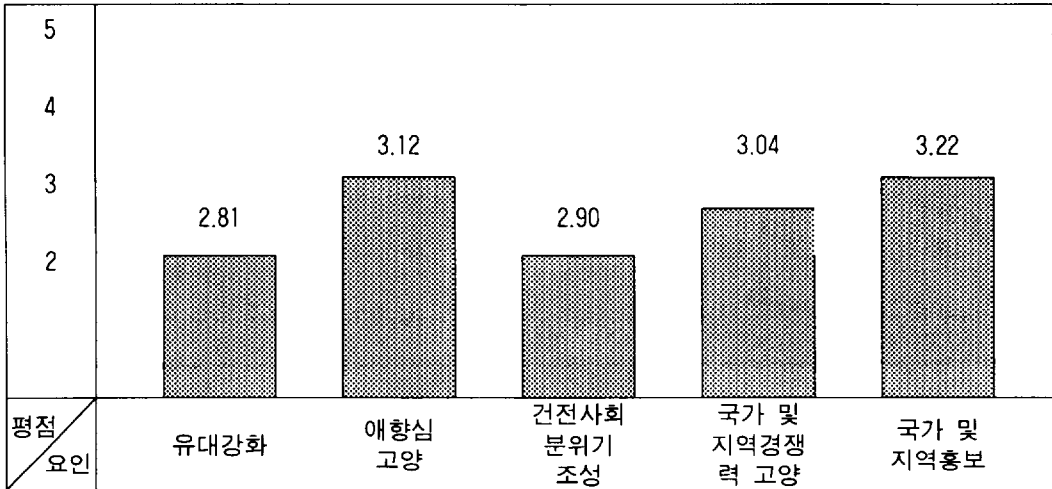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은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에 있어 학교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에 있어 여성에게서, 연령별에서는 10대와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엘리트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경기인과 일반인에게서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관계에 있어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과 국가 및 지역 홍보에 대해서 보통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강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고양에 대하여는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요인별에 있어서는 30대 연령층에서 그리고 경기인 등이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고양, 국가 및 지역 홍보 등에 다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 사회관계에 미친 영향의 요인별 비교

## 2.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

<표 4-1,2,3>, <그림 3>은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 일반 및 사회 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관계를 연대별로 조사한 내용이다.

연대별로 보면 70년대가 평점 범위 1~5 점에서 2.37로서 부정적인 반면 80년대에 들어서는 3.08로 보통 정도의 평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80년대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 유치 개최로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가운데 90년대에 들어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인 것으로 이해된다.

요인별 유의차 검증 및 Scheffe 사후 검증 결과에 있어서도 이에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70년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37	2.37	2.40	2.29	2.34	2.36	2.43	2.38	2.29	2.34	2.40	2.37
SD	1.11	1.01	1.08	1.02	1.02	1.04	1.20	1.04	1.14	1.06	1.06	1.07
t or F	0.01		1.02		0.14				0.34			
P	0.919		0.312		0.935				0.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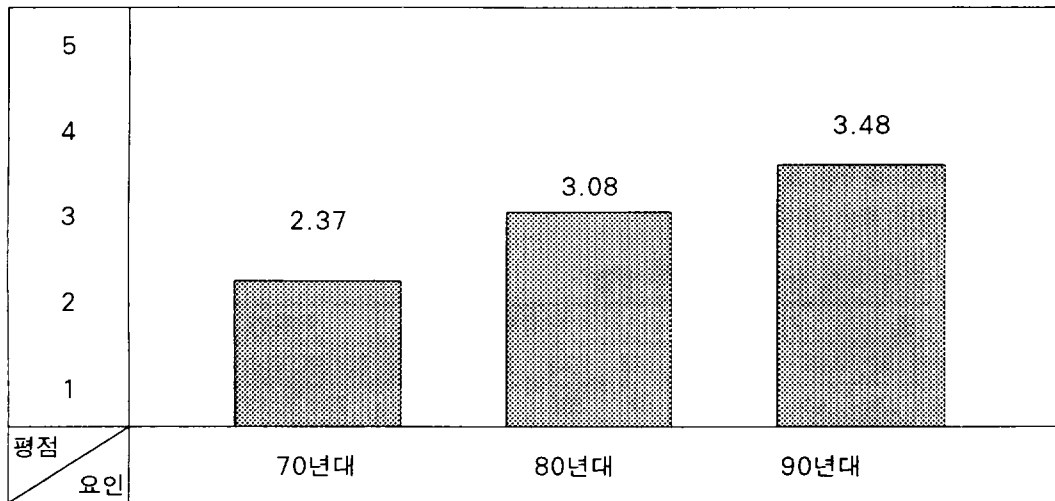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4-2>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80년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10	3.06	3.09	3.06	3.01	3.11	3.08	3.09	3.16	3.08	3.07	3.08
SD	0.95	0.97	0.93	1.04	1.04	0.92	0.99	0.96	0.92	1.09	0.91	0.97
t or F	0.21		0.13		0.25				0.27			
P	0.647		0.715		0.864				0.762			

<표 4-3>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90년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43	3.54	3.51	3.39	3.45	3.51	3.53	3.35	3.57	3.46	3.47	3.48
SD	0.93	0.83	0.89	0.89	0.93	0.83	1.00	0.93	0.74	0.97	0.89	0.89
t or F	2.05		1.84		0.80				0.47			
P	0.152		0.175		0.492				0.622			



<그림 3> 연대별 엘리트 스포츠 영향력에 대한 인식 변화

### 3. 엘리트 스포츠의 행정 조직

#### 1) 행정 책임자

〈표 5-1〉은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스포츠 행정 책임자에 기관장(시장, 도지사) 또는 경제인 선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2.50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 있어 유의한 차이 (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cheffé 의 검증에 의하면, 행정 책임자 선임에 대한 평균치 차이는 체육인 중의 경기인과 일반인" 간에 발견되고 있다. 즉 경기인에 비해 일반인이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표 5-1〉 행정 조직 책임자 선정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51	2.48	2.52	2.43	2.53	2.42	2.59	2.60	2.77	2.59	2.39	2.50
SD	0.88	0.76	0.86	0.74	0.71	0.80	1.01	0.83	0.99	0.81	0.79	0.83
t or F	0.13		1.12		1.52				7.68			
P	0.7223		0.2896		0.2095				0.0005			

#### 2)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

〈표 5-2〉는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2.63으로 "저조한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체육인과 일반인, 그리고 체육인 중에서도 경기인과 비 경기인간에 유의한 ( $P < .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인 중 경기인은 2.83점 비경기인은 2.76점, 일반인은 2.53점으로 체육인보다는 일반인이 체육인 중에는 경기인 보다 비경기인이 다소 엘리트 체육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62	2.65	2.61	2.70	2.51	2.60	2.76	2.73	2.83	2.76	2.53	2.63
SD	0.85	0.87	0.85	0.85	0.83	0.83	0.95	0.88	0.92	0.89	0.82	0.87
t or F	0.23		1.05		1.82				5.71			
P	0.6308		0.3069		0.1427				0.0035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그리고 Scheffé 의 사후 검증에서도 "일반인과 경기인, 비경기인"간에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엘리트 스포츠 단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기인들이 일반인이나 비경기인들보다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3) 엘리트 스포츠 단체의 행정 체계 및 정책

<표 5-3>는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행정체계 및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28점으로 "보통"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인 중 경기인이 3.23점, 비경기인이 3.17점, 일반인이 3.28점으로 경기인과 일반인은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 ( $P > .05$ )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3> 스포츠 단체의 행정체계 및 정책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25	3.24	3.25	3.23	3.29	3.15	3.33	3.40	3.23	3.17	3.28	3.25
SD	0.91	0.87	0.84	0.84	0.86	0.89	0.89	0.94	1.01	0.87	0.88	0.89
t or F	0.01		0.04		2.17				0.66			
P	0.9140		0.8409		0.0910				0.5182			

4)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표 5-4>는 지역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자치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31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결과 연령별,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heffé 의 검증에 의해서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스포츠의 행정 조직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관장과 경제인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행정 책임자 선임 제도와,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부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단체 및 체육회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행정체계·정책, 지방자치 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는 그저 그런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34	3.26	3.31	3.30	3.30	3.20	3.53	3.44	3.36	3.18	3.35	3.31
SD	1.11	0.99	1.04	1.04	1.13	1.06	1.03	0.99	1.12	1.12	1.02	1.06
t or F	0.72		0.02		2.71				1.32			
P	0.3967		0.8828		0.0442				0.2685			

#### 4. 학생 선수의 관리

##### 1) 학업 손실의 방지를 위한 노력

〈표 6-1〉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 운동 선수들의 학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 점에서 2.23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평가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각 성별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신분별에서는 체육인보다 일반인들이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Scheffé 의 검정에 의하면 학업 손실 방지에 대한 평균치 차이는 “경기인과 일반인”, “일반인과 비경기인”간에 발견되고 있다. 즉 경기인과 비경기인 간에는 일반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체육인과 일반인 간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김동규(1995)의 엘리트 스포티즘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및 태도 조사 결과 (2.09)에서 보다는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운동 선수의 학업 손실 방지를 위한 노력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31	2.12	2.26	2.14	2.02	2.25	2.37	2.22	2.53	2.38	2.10	2.23
SD	1.09	0.93	1.02	1.02	0.97	1.08	0.99	0.91	1.21	1.14	0.91	1.02
t or F	4.37		1.31		1.80				7.67			
P	0.0371		0.2532		0.1465				0.0005			

##### 2)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횟수

〈표 6-2〉은 학생 운동선수의 대회참가 회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전체적 경향에서는 연3회 참가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서는 연2회 4회 1회순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6-2〉 연간 학생 선수의 대외 경기 참가횟수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연1회	24	4	19	9	5	13	5	5	3	8	17	28
	4.45	0.74	3.53	1.67	0.93	2.41	0.93	0.93	0.56	1.48	3.15	5.19
연2회	75	92	132	35	20	79	33	35	21	26	120	167
	13.91	17.07	24.49	6.49	3.71	14.66	6.12	6.49	3.90	4.82	22.26	30.98
연3회	111	77	130	58	32	113	22	21	25	61	102	188
	20.59	14.29	24.12	10.76	5.94	20.96	4.08	3.90	4.64	11.32	18.92	34.88
연4회	92	62	122	32	31	75	32	16	26	38	90	154
	17.07	11.50	22.63	5.94	5.75	13.91	5.94	2.97	4.82	7.05	16.70	28.57
기타	2	0	1	1	1	0	1	0	0	1	1	2
	0.37	0.00	0.19	0.19	0.19	0.00	0.19	0.00	0.00	0.19	0.19	0.37
계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56.40	43.60	74.95	25.05	16.51	51.95	17.25	14.29	13.91	24.86	61.22	100.00
SD	0.96	0.84	0.90	0.90	0.95	0.85	1.00	0.89	0.89	0.89	0.91	0.91
t or F	0.26		0.33		2.40				2.17			
P	0.6114		0.5672		0.0669				0.1147			

이와 같은 경향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지역별에서는 군지역 거주자에서, 연령별에서는 10대와 20대에서, 신분별에서는 비경기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여자, 시지역거주자 30대 이상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는 연 2회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체육인중 경기인들은 연4회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3) 상급학교 특기생 진학 제도

〈표 6-3〉은 학생 운동 선수들의 상급학교 특기생 진학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냐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점에서 3.21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경향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다.

〈표6-3〉 상급학교 특기생 진학제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23	3.19	3.26	3.06	3.09	3.22	3.20	3.34	3.35	3.22	3.18	3.21
SD	1.16	1.05	1.14	1.14	1.12	1.08	1.18	1.14	1.20	1.06	1.11	1.13
t or F	0.13		3.39		0.69				0.73			
P	0.7138		0.0662		0.5598				0.4817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결과 연령별과 신분별에서 다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발견되고 있는데 연령별에서는 40대 이상이 3.34점으로 다른 연령층 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신분별에서는 경기인이 3.35점으로 비경기인과 일반인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 검증 결과에 의하면 각 요인별에서 평균치 차이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4) 장학(경제적) 혜택의 정도

〈표 6-4〉는 학생 운동 선수들의 장학(경제적) 혜택은 어느 정도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학비 및 숙식제공이 전체 평균에서 37.11%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학비 및 숙식, 스카우트비 제공 등이 28.9%, 학비 면제가 20.2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Scheffé의 사후 검증 결과 "경기인과 비경기인"에 유의한 차이가 를 나타냈다.

이의 결과에서 경기인들의 경우 학비면제, 숙식제공, 스카우트비 제공 등에 긍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6-4〉 장학(경제적) 혜택의 정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무혜택	17	5	13	9	7	8	3	4	1	7	14	22
	3.15	0.93	2.41	1.67	1.30	1.48	0.56	0.74	0.19	1.30	2.60	4.08
학비면제	66	43	82	27	12	62	25	10	14	33	62	109
	12.24	7.98	15.21	5.01	2.23	11.50	4.64	1.86	2.60	6.12	11.50	20.22
숙식제공	17	16	22	11	11	16	2	4	2	8	23	33
	3.15	2.97	4.08	2.04	2.04	2.97	0.37	0.74	0.37	1.48	4.27	6.12
학비면제 숙식제공	112	88	158	42	29	96	42	33	24	42	134	200
	20.78	16.33	29.31	7.79	5.38	17.81	7.79	6.12	4.45	7.79	24.86	37.11
학비숙식 스카우트비	76	80	114	42	24	85	21	26	31	34	91	156
	14.10	14.84	21.15	7.79	4.45	15.77	3.90	4.82	5.75	6.31	16.88	28.94
기타	16	3	15	4	6	13	0	0	3	10	6	19
	2.97	0.56	2.78	0.74	1.11	2.41	0.00	0.00	0.56	1.86	1.11	3.53
계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56.40	43.60	74.95	25.05	16.51	51.95	17.25	14.29	13.91	24.86	61.22	100.00
SD	1.35	1.17	1.37	1.37	1.41	1.29	1.20	1.17	1.22	1.41	1.23	1.29
t or F	2.95		1.49		1.07				2.31			
P	0.0865		0.2230		0.3607				0.0999			

학생 운동선수의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학교에서 운동선수의 학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특기생 제도 및 장학혜택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좋은 제도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학(경제적) 혜택에 있어 학비 및 숙식 제공 등에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제주도민의 경우 학생 선수들의 연간 대회 참가 횟수에 대하여는 3회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대표 선수 및 팀 관리

### 1) 대표 선수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

〈표 7-1〉은 제주도 대표 선수 및 팀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 출전하였을 때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을 조사한 내용으로 평점 범위 1~5점에서 3.01점으로 "그저 그렇다"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에서 남자(2.97), 10대(2.89), 20대(2.98), 40대이상(2.95), 군 지역 거주자(2.90), 비경기인(2.98)들은 보통 수준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사후 검증 결과 유의차는 "경기인과 비경기인", 일반인과 비경기인"간에 발견되고 있으며, "연령별", "일반인과 경기인"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평점 평가 결과에서는 김동규(1995:405)의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한국 국민들이 대표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 정도(3.13)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7-1〉 대표 선수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97	3.06	3.04	2.90	2.89	2.98	3.25	2.95	3.04	2.98	3.01	3.01
SD	1.02	1.05	1.09	1.09	1.12	1.05	1.00	0.86	0.99	1.07	1.03	
T or F	0.96		1.75		2.24				0.09			
P	0.3264		0.1863		0.0827				0.9119			

### 2) 우수 엘리트 선수의 스카우트 및 선수 교류

〈표 7-2〉는 우수 엘리트 선수의 스카우트 및 선수교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 점에서 3.85점으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 지역별,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 (P <.05)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에서는 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체육인 중에는 경기인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비경기인과 군지역 거주자는 다소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7-2〉 우수 엘리트 선수의 스카우트 및 선수 교류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76	3.87	3.86	3.64	3.78	3.82	3.83	3.79	4.00	3.60	3.85	3.81
SD	1.03	0.97	1.03	1.03	0.97	0.98	1.04	1.12	0.92	1.04	1.00	1.01
t or F	1.66		4.84		0.06				4.42			
P	0.1987		0.0282		0.9815				0.0124			

3)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집단 합숙 훈련

〈표 7-3〉은 대표 선수로 선발된 우수 선수들의 종목별 집단 합숙 훈련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점에서 3.54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 7-3〉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집단 합숙훈련 실시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57	3.51	3.58	3.44	3.36	3.52	3.66	3.73	3.79	3.32	3.58	3.54
SD	0.98	0.94	0.97	0.97	1.05	0.94	1.01	0.85	0.89	1.04	0.93	0.96
t or F	0.55		2.00		2.54				6.40			
P	0.4596		0.1580		0.0555				0.0018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나타나고 있는데, 체육인중 경기인이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우수선수 포상 제도

〈표 7-4〉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에 대해 포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기준 1~5점에서 2.31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 $P > .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의 검증에서 역시 집단간에 평균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제주도민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의 대회 출전 선수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또한 집단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7-4> 우수성적에 대한 포상제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29	2.33	2.28	2.39	2.29	2.39	2.15	2.23	2.21	2.31	2.33	2.31
SD	0.90	0.89	0.87	0.87	0.87	0.94	0.85	0.81	0.99	0.90	0.87	0.89
t or F	0.25		1.28		1.92				0.52			
P	0.6151		0.2591		0.1248				0.5936			

대표 선수 및 팀 관리에 대한 의식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회에 출전한 도 대표 선수 및 팀에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있어서는 보통 정도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군 지역 거주자, 남자, 30대를 제외한 연령층, 비경기인 등에서는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지역간 또는 팀간의 스카우트 및 교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표 선수로 선발된 우수 선수들의 집단 합숙 훈련 실시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 각종 경기대회

1) 제주도내 스포츠 경기대회

(1) 지역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

<표 8-1>은 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종목별 경기대회 및 종합경기대회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평점기준 1~5점에서 3.10점인 "보통"으로 나타났다.

<표 8-1> 지역 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01	3.09	3.04	3.07	3.18	3.11	2.89	2.84	2.88	3.01	3.10	3.04
SD	0.92	0.90	0.91	0.91	0.78	0.88	1.03	0.99	0.93	0.85	0.93	0.91
t or F	0.92		0.09		3.28				1.95			
P	0.3367		0.7657		0.0207				0.1439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 유의차 검증결과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별에서는 10대와 20대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heffé 의 검증에서는 집단간에 평균치의 차이를 발견되지 않았다.

### (2) 엘리트 선수 육성에의 기여

〈표 8-2〉는 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종목별 경기대회 및 종합경기대회가 엘리트 선수 육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점에서 2.92점으로 기여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결과 성별, 연령별,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0대들의 경우 보통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기여정도가 적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경기인보다 비경기인과 일반인이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heffé 의 검증에서는 집단간에 평균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8-2〉 엘리트 선수 육성에 대한 기여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88	2.97	2.91	2.96	3.07	2.98	2.80	2.69	2.80	2.99	2.92	2.92
SD	1.09	0.96	1.10	1.10	1.01	1.02	1.15	0.99	1.17	1.03	1.01	1.06
t or F	0.81		0.21		2.63				0.76			
P	0.3697		0.6488		0.0492				0.4674			

### (3) 주최·주관의 선정 운영

〈표 8-3,4,5,6〉은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경기대회의 주최, 주관 단체의 선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평점 범위 1~5점에서 스포츠 단체의 주최 주관운영에 대해서는 3.55점, 자치단체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은 3.53점으로 "긍정"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단체 또는 기업체가 주최하고 스포츠 단체가 주관하는 것에는 3.41점, 언론사가 주최 스포츠 단체가 주관하는 데에는 3.32점으로 "보통"이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이들 각 항목에 있어 집단간 Scheffé 사후 검증결과 각 집단간의 평균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각종 대회의 개최에 있어 대회 운영전반과 행·재정적 처리 등에 대한 책임과 경기운영 전담을 스포츠 단체가 전적으로 담당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대회운영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포츠 단체가 경기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8-3〉 스포츠단체 주최 주관 운영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53	3.57	3.57	3.47	3.36	3.49	3.68	3.81	3.59	3.33	3.62	3.55
SD	0.93	0.87	0.87	0.87	0.98	0.83	0.90	1.03	0.81	0.92	0.91	0.90
t or F	0.21		1.12		4.46				5.25			
P	0.6446		0.2908		0.0042				0.0055			

〈표 8-4〉 일반 사회단체 또는 기업체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38	3.44	3.43	3.32	3.27	3.42	3.31	3.61	3.45	3.38	3.40	3.41
SD	0.89	0.93	0.81	0.81	1.00	0.83	0.98	0.99	0.92	0.96	0.89	0.91
t or F	0.64		1.54		2.32				0.16			
P	0.4238		0.2154		0.0742				0.8551			

〈표 8-5〉 자치단체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52	3.55	3.60	3.35	3.47	3.53	3.57	3.57	3.61	3.46	3.55	3.53
SD	0.95	0.91	0.86	0.86	0.99	0.83	0.96	1.16	0.91	0.96	0.92	0.94
t or F	0.10		7.29		0.22				0.69			
P	0.7489		0.0072		0.8832				0.5021			

〈표 8-6〉 언론사가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33	3.30	3.37	3.16	3.28	3.33	3.31	3.34	3.25	3.33	3.33	3.32
SD	1.00	0.94	0.97	0.97	1.17	0.85	1.03	1.08	0.97	0.94	0.99	0.99
t or F	0.10		4.55		0.06				0.19			
P	0.7516		0.0334		0.9811				0.8295			

(4) 경기 운영 방식

〈표 8-7.8.9.10〉은 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경기대회 경기운영 방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평점기준1~5점에서 지역간 대항 경기 또는 직장 대항 경기, 종목별 클럽대항경기, 학교대항 경기 등에 대해서 모두 3.58점 긍정적인 경기 방식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교 대항 경기를 가장 선호(3.73)하고 있고 다음이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3.72), 지역간 대항경기(3.62), 직장대항경기(3.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유의차 검증결과 지역간 대항경기에서는 지역별에서, 직장대항경기에서는 전체 요인별에서, 종목별 클럽대항경기에서는 성별과 신분별에서, 학교대항 경기에서는 지역별을 제외한 전 요인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 $P < .05$ )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지역간 대항 경기에 대해 군 지역 거주자가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직장간 경기에서는 남자와 군 지역 거주자 그리고 40대 이상, 비경기인들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에 대해서는 성별에서 남자, 신분별에서 비경기인이, 학교대항경기에 대해서는 성별에서 남자가, 신분별에서 경기인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학교 대항 경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별에서 남자는 학교대항 경기를, 여자는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를 좀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별에서 시지역거주자는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를 군지역거주자는 지역대항 경기를 다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0대와 20대는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 30대와 40대 이상은 학교대항 경기를 신분별에서 경기인은 학교대항 경기를, 비경기인은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 일반인은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와 학교대항 경기 똑같이 각각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표 8-7〉 지역간 대항경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66	3.60	3.58	3.78	3.65	3.63	3.62	3.62	3.73	3.62	3.62	3.63
SD	0.94	0.92	0.84	0.84	1.03	0.88	1.00	0.95	0.84	0.98	0.94	0.92
t or F	0.51		4.38		0.02				0.51			
P	0.4759		0.0369		0.9968				0.6030			

〈표 8-8〉 직장 대항경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68	3.46	3.56	3.65	3.58	3.61	3.44	3.64	3.69	3.72	3.50	3.58
SD	0.88	0.81	0.87	0.87	0.96	0.83	0.84	0.84	0.82	0.92	0.83	0.86
t or F	8.66		1.17		1.07				3.70			
P	0.0034		0.2795		0.3605				0.0253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8-9> 종목별 클럽 대항경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80	3.62	3.72	3.72	3.74	3.74	3.67	3.68	3.72	3.84	3.67	3.72
SD	0.91	0.86	0.92	0.92	0.96	0.89	0.88	0.83	0.86	0.94	0.88	0.90
t or F	5.12		0.00		0.25				1.81			
P	0.0241		0.9840		0.8596				0.1651			

<표 8-10> 학교 대항경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82	3.61	3.71	3.78	3.73	3.72	3.70	3.79	3.96	3.74	3.67	3.73
SD	0.93	0.92	0.89	0.89	1.11	0.92	0.89	0.83	0.85	1.00	0.92	0.92
t or F	6.33		0.53		0.16				2.99			
P	0.0122		0.4683		0.9920				0.0511			

2) 전국규모대회 유치

<표 8-11>은 전국규모대회 유치 개최가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평점기준 1~5점에서 3.43점으로 "보통"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성별,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신분별에서 경기인의 경우 역시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사후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경기인과 일반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표 8-11> 전국대회 유치개최가 스포츠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60	3.21	3.44	3.42	3.19	3.47	3.47	3.52	3.76	3.44	3.35	3.43
SD	0.99	1.04	1.05	1.05	1.11	1.00	1.10	0.91	0.90	1.02	1.05	1.02
t or F	19.60		0.02		2.01				4.81			
P	0.0001		0.8958		0.1118				0.0085			

3) 전국규모대회 참가

<표 8-12,13,14,15>는 전국규모대회에 참가와 관련된 참가 기회, 선수단 규모, 경기력 향상, 참가종목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내용 결과 평점 기준 1~5점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4.33점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 기회의 확대(4.21) 참가종목의 다양화(4.07)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선수단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3.80점으로 "필요하다"는 부문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8-12> 대회 참가 기회 확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31	4.16	4.26	4.19	4.27	4.22	4.32	4.19	4.39	4.25	4.21	4.24
SD	0.71	0.72	0.77	0.77	0.79	0.75	0.63	0.61	0.57	0.73	0.74	0.71
t or F	5.39		1.17		0.62				1.88			
P	0.0206		0.2797		0.6018				0.1539			

<표 8-13> 참가 선수단 규모 확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79	3.81	3.81	3.76	3.84	3.78	3.85	3.79	4.05	3.80	3.75	3.80
SD	0.92	0.80	0.91	0.91	0.85	0.88	0.85	0.89	0.91	0.85	0.86	0.88
t or F	0.07		0.35		0.25				3.86			
P	0.7917		0.5531		0.8621				0.0216			

<표 8-14>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35	4.31	4.35	4.27	4.38	4.35	4.25	4.30	4.40	4.31	4.32	4.33
SD	0.74	0.69	0.72	0.72	0.76	0.71	0.80	0.56	0.68	0.73	0.72	0.71
t or F	0.19		1.10		0.69				0.42			
P	0.6629		0.2941		0.5601				0.6598			

〈표 8-15〉 참가 종목의 다양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12	4.02	4.10	4.01	3.99	4.14	4.14	3.88	4.21	4.01	4.07	4.08
SD	0.86	0.83	0.90	0.90	0.97	0.82	0.77	0.83	0.76	0.83	0.87	0.85
t or F	1.87		1.00		2.37				1.34			
P	0.1717		0.3170		0.0700				0.2624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대회 참가 규모의 확대에서는 성별에서, 선수단 규모의 확대에 있어서는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나타났으며, 경기력 향상과 참가종목의 다양화에 있어서는 각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간에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사후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일반인과 경기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 3) 각종 대회 운영시 우선적으로 시정 고려되어야 할 사항

〈표 8-16〉은 각종 대회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시정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로 선수 이외의 일반 참여의 무관심, 과잉경쟁, 관주도형 운영, 재정의 과다지출, 개최시기, 종목운영, 인력동원, 규모의 비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인들의 경우는 일반 참여의 무관심에 대하여 성별 지역별, 연령별, 신분별에 관계없이 각 요인별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시정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일반 참여의 무관심 다음으로 과잉경쟁을 지적하고 있지만 경기인, 30대의 연령층, 군지역 거주자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인의 경우 인력동원의 문제를 비경기인의 경우 종목 운영의 문제를, 30대의 경우 관주도의 대회 운영을, 군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개최 시기의 문제 등을 무관심 다음으로 시정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8-16> 각종 대회 운영시 우선 시정 고려 되어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규모비대	43	23	48	18	9	41	7	9	11	19	36	66
	3.99	2.13	4.45	1.67	0.83	3.80	0.65	0.83	1.02	1.76	3.34	6.12
관주도	64	46	81	29	13	54	28	15	12	26	72	110
	5.94	4.27	7.51	2.69	1.21	5.01	2.60	1.39	1.11	2.41	6.68	10.20
재정과다	54	53	72	35	24	49	18	16	9	26	72	107
	5.01	4.92	6.68	3.25	2.23	4.55	1.67	1.48	0.83	2.41	6.68	9.93
개최시기	60	41	75	26	18	57	13	13	15	34	52	101
	5.57	3.80	6.96	2.41	1.67	5.29	1.21	1.21	1.39	3.15	4.82	9.37
과잉경쟁	66	54	93	27	17	60	21	21	17	28	75	120
	6.12	5.01	8.63	2.50	1.58	5.57	1.95	1.95	1.58	2.60	6.96	11.13
인력동원	49	40	75	14	4	30	19	26	20	11	58	89
	4.55	3.71	6.96	1.30	0.37	2.78	1.76	2.41	1.86	1.02	5.38	8.26
종목운영	54	43	76	21	21	55	13	7	14	32	51	97
	5.01	3.99	7.05	1.95	1.95	5.10	1.21	0.65	1.30	2.97	4.73	9.00
참가방법	40	37	52	25	14	45	9	9	8	23	46	77
	3.71	3.43	4.82	2.32	1.30	4.17	0.83	0.83	0.74	2.13	4.27	7.14
무관심	154	114	213	55	48	143	43	34	37	59	172	268
	14.29	10.58	19.76	5.10	4.45	13.27	3.99	3.15	3.43	5.47	15.96	24.86
기타	24	19	23	20	10	26	15	4	7	10	26	43
	2.23	1.76	2.13	1.86	0.93	2.41	1.39	0.37	0.65	0.93	2.41	3.99
계	608	470	808	270	178	560	186	154	150	268	660	1,078
	56.40	43.60	74.95	25.05	16.51	51.95	17.25	14.29	13.91	24.86	61.22	100.00
SD	2.50	2.39	2.70	2.70	2.57	2.56	2.16	2.26	2.41	2.34	2.51	2.46
t or F	0.16		6.65		0.29				0.68			
P	0.7556		0.1136		0.8321				0.5893			

## 7.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1)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전환

<표 9-1>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엘리트 육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05점으로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정에서는 각 요인별에서 유의한 차이 (P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표 9-1〉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전환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07	4.03	4.06	4.03	3.99	4.03	4.25	4.00	4.09	4.03	4.06	4.05
SD	0.78	0.74	0.77	0.77	0.90	0.72	0.76	0.74	0.70	0.88	0.73	0.77
t or F	0.33		0.21		2.45				0.17			
P	0.5643		0.6481		0.0628				0.8454			

2) 지도자의 자질 개선 및 효율적 관리

〈표 9-2〉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지도자의 자질 개선과 관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3점으로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 보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9-2〉 지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14	4.12	4.15	4.08	4.02	4.09	4.29	4.21	4.28	3.86	4.21	4.13
SD	0.77	0.74	0.69	0.69	0.80	0.77	0.72	0.66	0.73	0.89	0.67	0.74
t or F	0.12		0.80		2.53				12.53			
P	0.7338		0.3715		0.0567				0.0001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결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비경기인과 일반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비경기인의 경우 일반인 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

〈표 9-3〉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2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연령별,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테스트 결과 "비경기인과 일반인", "경기인과 비경기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연령별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신분별에서는 경기인이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9-3>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10	4.15	4.13	4.11	3.88	4.13	4.39	4.06	4.29	3.89	4.18	4.12
SD	0.79	0.76	0.82	0.82	0.93	0.75	0.66	0.71	0.69	0.87	0.73	0.78
t or F	0.58		0.05		6.95				9.14			
P	0.4483		0.8199		0.0001				0.0001			

4)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표 9-4>는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을 위한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3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4> 생활 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13	4.14	4.15	4.10	4.01	4.16	4.24	4.09	3.99	4.13	4.18	4.13
SD	0.80	0.82	0.89	0.89	0.98	0.79	0.79	0.67	0.80	0.87	0.79	0.83
t or F	0.02		0.34		1.34				1.66			
P	0.8895		0.5584		0.2599				0.1902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연령별,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스포츠의 과학화

<표 9-5>는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스포츠 과학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7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지역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군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표 9-5> 스포츠의 과학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25	4.06	4.21	4.04	4.03	4.15	4.32	4.21	4.27	4.18	4.15	4.17
SD	0.84	0.88	0.90	0.90	1.03	0.83	0.85	0.78	0.79	0.88	0.87	0.87
t or F	6.46		3.88		1.80				0.61			
P	0.0113		0.0494		0.1458				0.5432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6) 스카우트와 관련된 금전 보상 및 장학제도

〈표 9-6〉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스카우트와 관련된 금전 보상 및 장학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70점으로 "필요하다" 부문에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 $P < .05$ )가 나타나고 있는데 10대와 30대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9-6〉 금전보상 및 장학제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69	3.72	3.72	3.67	3.54	3.78	3.54	3.83	3.87	3.70	3.67	3.70
SD	0.99	0.88	0.94	0.94	0.97	0.86	1.08	1.01	0.93	0.88	0.97	0.95
t or F	0.13		0.33		3.00				1.29			
P	0.7210		0.5683		0.0302				0.2752			

7)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

〈표 9-7〉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80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지역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7〉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85	3.74	3.80	3.79	3.78	3.84	3.84	3.62	3.92	3.82	3.76	3.80
SD	0.85	0.84	0.86	0.86	0.91	0.83	0.88	0.76	0.78	0.88	0.84	0.84
t or F	2.37		0.01		1.46				1.11			
P	0.1245		0.9109		0.2239				0.3309			

8) 중앙 행사의 지방 분산

〈표 9-8〉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중앙 중심 행사의 지방 분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92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5$ )가 나타나고 있다.

<표 9-8> 중앙행사의 지방분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91	3.93	3.93	3.90	3.74	3.92	4.04	3.97	4.07	3.72	2.04	3.92
SD	0.98	0.93	1.02	1.02	1.11	0.98	0.78	0.84	0.79	1.07	0.93	0.95
t or F	0.08		0.10		1.64				4.10			
P	0.7724		0.7567		0.1794				0.0170			

Scheffè 테스트 결과 "비경기인과 일반인", "경기인과 비경기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일반인들은 체육인에 비하여 중앙 행사의 지방 분산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체육인들의 경우는 다소 일반인 보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기관장·경제인 중심의 체육 행정 책임자 선정

<표 9-9>는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기관장·경제인 중심의 체육 행정 책임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의 범위에서 3.48점으로 "모르겠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기관장, 경제인 중심의 체육행정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46	3.58	3.50	3.54	3.54	3.52	3.48	3.49	3.56	3.56	3.48	3.51
SD	1.01	0.99	1.12	1.12	0.99	0.98	1.02	1.10	0.92	0.94	1.05	1.02
t or F	1.97		0.13		0.06				0.36			
P	0.1606		0.7203		0.9797				0.7009			

10) 마스크의 협조

<표 9-10>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마스크의 협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5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의 시행 발전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각 나열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김승곤·정찬식)

항목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마스크의 협조(4.19)가 필요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의 과학화(4.17),지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4.13)와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4.13),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4.12),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4.05),중앙 행사의 지방 분산(3.92),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3.8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과 중앙 행사의 지방 분산에 대해서 경기인들이 비경기인이나 일반인 보다 그 필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9-10〉 마스크의 협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25	4.12	4.22	4.10	4.25	4.18	4.19	4.17	4.31	4.22	4.15	4.19
SD	0.82	0.78	0.86	0.86	0.86	0.78	0.90	0.73	0.73	0.75	0.84	0.81
t or F	3.13		2.22		0.17				1.23			
P	0.0775		0.1365		0.9139				0.2942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 및 선수와 팀의 관리, 각종 경기대회 운영,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대학 재학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제주도민 539명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엘리트 스포츠가 학교 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항심 고양과 지역 홍보 등에 부분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을 뿐 도민간의 유대강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 경쟁력 고양 등 사회 관계에 미친 영향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80년대 이후 긍정적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 책임자의 선임,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경기인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경기단체, 지역 체육회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행정체계 및 정책과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학생 운동 선수의 학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대표 선수 및 팀에 대하여 경기인 외의 일반 도민의 경우 기대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넷째,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지역간 팀간의 교류 그리고 집단 합숙 훈련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수 선수에 대한 포상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종목별 경기대회 및 종합경기대회는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회 운영시 선수 이외의 일반 참여의 무관심, 과잉경쟁, 관주도형 운영, 재정의 과다지출, 개최시기, 종목운영, 인력동원, 규모의 비대화 등은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대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2. 제 언

이와 같은 결론에 의하여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엘리트 스포츠가 학교체육 및 생활 체육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합은 물론 전문 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둘째, 선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선수의 학업 손실을 줄이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엘리트 선수들의 전인적 자질 향상 위한 노력이 기울여 져야 한다. 아울러 대표 선수 및 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를 갖을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우선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른 대회 참가 기회의 확대, 참가종목의 다양화 등이 검토와 우수 선수들 대한 포상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대회와 전국규모대회 유치 개최가 지역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의 시행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의 과학화, 지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등이 요청되고 있으며, 마스크 또는 마스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엘리트 스포츠 활동의 순기능적 요소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동규(1993), 현대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한 체육, 스포츠의 본질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엘리트 스포티즘에 대한 한국국민의 의식 및 태도 조사연구”, 스포츠과학연구논총, 문화체육부.
- 김성룡·장세창·송승건(1993),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논문집 제20집.
- 오상남(1993),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체육교사의 의식 및 태도조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성태(1998),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체육과학연구소 제3회 세미나.